

나레이티브를 통한 아동의 애착 평가: 임상군과 비임상군간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행동, 가족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진 미 경¹⁾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본 연구는 임상군과 비임상군 아동들간 애착유형별로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행동과 가족에 대한 인식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나레이티브를 통한 아동의 애착 평가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임상군에 있어서는 6-9세 연령의 K대학병원 소아정신과를 내원한 62명의 아동과 어머니들이다. 비임상군에 있어서는 53명의 아동과 어머니들이 참여하였다. 아동의 애착 유형을 평가하기 위해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 검사(Manchester Attachment Story Task)가 실행되어졌고,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행동 관찰을 위해 정서적 가용성 척도(emotional availability scale)가 이용되어졌으며, 아동의 가족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Fury의 가족화 척도가 이용되어졌다. 그 결과 아동 애착이 안정인 그룹에 있어 어머니의 비침해적 행동이 임상군과 비임상군간에 차이가 있었다. 아동의 가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아동 애착이 안정인 그룹에 있어 정서적 거리감, 역할전이 척도 점수가 임상군과 비임상군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아동 애착이 불안정인 그룹에 있어서는 정서적 거리감 척도 점수가 임상군과 비임상군간에 차이가 있었다.

주요어 : 아동 애착,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가족 인식

* 본 논문의 임상군 대상과 측정도구는 인간발달연구 16권 3호에 게재된 '나레이티브를 통한 아동의 애착평가의 임상적 유용성: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행동, 문제행동, 가족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문의 분석자료로부터 사용되었음.

* 본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8-331)

1) 교신저자 :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조교수 (E-mail : mkjin12@sookmyung.ac.kr)

I. 서 론

애착 이론 연구는 John Bowlby(1969, 1973)가 처음 내적실행모델이라는 개념을 소개한 이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는 애착이론의 핵심으로 Bowlby는 애착조직화에서의 개인차를 애착과 관련한 개인의 내적 표상 즉 내적실행모델에서의 개인차로 재개념화하였다. 이러한 개념의 등장 이후로 애착 이론가들은 개인의 내적 표상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이러한 일환으로 Ainsworth, Blehar, Waters와 Wall (1978)이 ‘낮선상황실험’이라는 영아들의 내적 표상을 평가하는 절차를 개발하면서 애착 평가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영아의 내적 표상을 평가하는 도구가 개발된 이후로는 아동기의 내적 표상을 평가하는 도구(Bretherton, Ridgeway, & Cassidy, 1990; Main & Cassidy, 1988)와 성인기의 애착 표상을 평가하는 도구(Goldwyn, Stanley, Smith, & Green, 2000)가 개발되어 애착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애착 영역에 대한 경험 연구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첫째, 생애 초기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관계가 아동기 성인기를 거치며 안정적인지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단기간 부모-자녀 애착 표상의 안정성을 보고한 연구(박응임, 유명희, 1997; Lyons-Ruth, Repacholi, McLeod, & Silva, 1991)들과 어머니들의 성인애착 표상과 그들 자녀들의 애착 표상간의 일치도를 통해 애착의 세대 간 전이에 대해 보고한 연구들

(진미경, 2006; 최해훈, 이경숙, 김태런, 1998; van IJzendoorn, 1995)이 실행되어 왔다.

둘째, 애착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관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양육행동이 자녀의 애착 안정성에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나유미, 1996; 박응임, 1994; 장미자, 1998; Ainsworth et al., 1978; De Wolf & van IJzendoorn, 1997; Grossmann, Grossmann, Spangler, Suess, & Unzner, 1985; Isabella & Belsky, 1991; Pederson & Moran, 1995; van IJzendoorn, 1995). 구체적으로 양육자의 양육 행동들 중 어머니의 양육의 민감성이 애착 안정성과 관련된다고 보고되어 왔으며(박응임, 1994; Ainsworth et al., 1978; De Wolf & van IJzendoorn, 1997; Grossmann et al., 1985; van IJzendoorn, 1995), 회피 애착 유형과 양육자의 차갑고 거부하는 양육행동 간의 관련성, 저항 애착 유형과 양육자의 일관적이지 못한 양육 행동 및 간섭하는(interfering)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이 보고되어 왔다(Ainsworth et al., 1978; Belsky, Rovine, & Taylor, 1984; Isabella & Belsky, 1991).

국내문헌들에서도 다양한 양육 행동들과 애착 안정성과의 관련성에 대해 보고되어 왔는데, 박응임(1994)은 영아에게 정서적으로 무관심하고 방임하며 신체적으로 체벌하는 등의 부당한 양육행동이 불안정 애착 형성과 관련됨을 보고하였다. 또한 성희용, 방희정 및 이순행(200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행동 특성 중 정서적 지지, 자율성 존중, 과제 지시, 유아에 대한 믿음이 애착 안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음으로 양육자의 양육행동 외에 애착 관계와 관련 있는 변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어머니의 정신건강 및 양육스트레스라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기질과 애착 안정성간의 관련성은 지금까지 논쟁적이어 왔지만 몇몇의 연구들(김승경, 강문희, 1999; Goldsmith & Alansky, 1987; Kagan, 1982)에서 아동의 기질과의 관련성이 보고되어 왔다. 또한 양육자 특성 변인으로는 양육자의 성격 및 기질과의 관련성이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어머니의 성격과 애착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해서보다는, 어머니의 성격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특성과의 관련성을 보고해 왔다(Belsky & Barends, 2002; Belsky, Crnic, & Woodworth, 1995; Kochanska, Clark, & Goldman, 1997; Mangelsdorf, Gunnar, Kestenbaum, Lang, & Andreas, 1990). 양육자의 기질 및 성격변인과 함께 또 다른 양육자 특성의 변인으로 양육스트레스(Jarvis & Creasey, 1991; Teti, Nakagawa, Das, & Wirth, 1991)가 애착 안정성과 관련됨이 보고되어 왔다. 몇몇의 연구들은(Jarvis & Creasey, 1991; Teti et al., 1991) 애착의 안정성과의 직접적인 관련을 보고하였고, Belsky (1984)의 연구와 Shaw와 Vondra(1993)의 연구는 가족, 양육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양육의 질과 관련성을 통해 애착안정성과의 간접적인 관련을 보고하였다.

셋째, 형성된 애착관계가 발달의 어떠한 영역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애착 이론의 가정에 따르면 생애 초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은 내적 작동 모델의 형태로 계속되고 그것은 후속적

관계에 대한 기대 및 사회적 사건의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Bowlby, 1969).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비반응적이고 민감하지 못한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부적응적인 의사소통 패턴과 부적응적인 감정 조절 패턴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자신과 신뢰할 수 있는 타인 및 세상에 대한 내적 작동 모델을 발달시키지 못하여 또래나 성인기의 대인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Bowlby, 1973; Main, Kaplan, & Cassidy, 1985; Zeanah & Barton, 1989).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해보면, 상당수의 애착 연구들이 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보다는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인식의 일환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애착 연구에 있어 임상적 변별성을 알아보고자 애착관계와 부적응 측면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들이 실행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Kobak, Sudler와 Gamble(1991)은 우울증의 수준이 높은 십대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과 몰두형 애착과의 관련성을 보고하였고, Rosenstein과 Horowitz(1996)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몰두형 애착이 정동장애와, 회피형 애착이 품행장애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는 김은정과 권정혜(1998)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BDI점수와 DSM-IV 진단기준에 따라 임상적 수준의 우울증상 집단, 비임상적 우울증상 집단, 비우울증상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몰두형 애착이 우울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임상군을 대상으로 애착관계와 가족관계 및 역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관련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소아정신과를 내원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진미경(2009)의 연구에서는 불안정 유형으로 분류된 아동들이 그림에 있어 기괴함과 같은 부정적인 가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안정 애착 유형으로 분류된 아동들은 생명력/창조성과 같은 긍정적인 가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그림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가족 구성원을 생략하거나 가족구성원 사이에 장애물을 더 많이 그리는 특징들이 나타났다(양익홍, 1984; Myers, 1978; Weinstein, 1965).

이상의 애착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해보면, 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일부 이루어져 왔으나, 상당수의 연구들이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임상군의 연구대상과 비임상군의 연구대상의 연구들이 애착 평가와 관련변인에 대해 같은 평가척도를 가지고 직접적인 비교분석이 이루어지보다는,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변별성을 논의하는데 있어 한계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군과 비임상군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같은 검사자료를 가지고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두 집단 간 어떠한 변별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본 연구 분석에 이용된 임상군 관련 자료는 인간발달연구 16권 3호에 게재된 논문과 동일 자료가 활용되었다. 분석에 이용된 임상군 관련 연구대상 및 평가

척도는 동일 자료이나, 본 연구가 같은 평가척도를 가지고 비임상군 아동과 직접적인 자료 비교를 통해 차별성을 알아보고자 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확장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애착 평가 및 관련변인에 대한 임상적 변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임상현장에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상담 현장 및 애착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군 아동들과 비임상군 아동들을 대상으로 나레이티브 분석을 통해 아동 애착 유형을 분류해보고, 애착 유형에 따라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는지, 가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을 통해 임상적 변별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나레이티브 분석을 통해 애착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아동기 애착 측정도구들은 크게 낯선상황실험과 같이 분리-결합에피소드를 적용하여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과 인형놀이(doll play)를 이용하여 아동의 나레이티브 분석을 통해 표상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분류되어진다. 일반적으로 분리-결합 에피소드를 활용한 측정방법은 분리 에피소드가 한 시간으로 길어 실행이 오래 걸린다는 점, 또한 그러한 분리 시간 동안 연령에 따라 애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미한 스트레스 상황이 가정되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어 질 수 있다는 점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나레이티브 분석을 통한 평가 방법이 이용되어졌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의 경우 애착 관련 선행연구

들을 통해 양육행동이 자녀의 애착 안정성에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는 측면에서, 가족화 분석을 통한 가족에 대한 인식의 경우 가족 또는 부모-자녀 관계와 관련된 아동의 문제, 가족 내에서 느끼는 감정과 가족 간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관점(김윤숙, 2005)서 관련변인으로 분석되었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임상군과 비임상군 아동간의 맨체스터 애착이야기 검사를 통한 아동의 애착 유형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임상군과 비임상군 아동간의 같은 애착 유형별로 어머니-아동의 상호작용 행동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임상군과 비임상군 아동간의 같은 애착 유형별로 가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임상군 아동들에 대한 표집은 K대학병원 소아정신과를 내원한 만 6세부터 만 9세 아동들 6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정서장애 및 과운동성 장애로 진단된 아동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발달문제가 있는 아동의 경우는 본 연구가 나레이티브 분석을 통한 평가라는 측면에서 연

구에서 제외되었다. 내원한 아동과 어머니들에게 부모-자녀 관계 평가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졌고, 참여 의사를 밝힌 아동과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 검사와 구조화된 문제해결 상황에서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이 촬영되었다. 아동들의 가족화는 병원 임상심리사에 의해 실시되었던 자료가 활용되었는데,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 검사에 참여한 대상자들 중 가족화 자료가 없는 경우 진료를 위한 내원시 실시하였으나, 내원을 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실시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맨체스터 애착이야기와 상호작용 분석의 아동 수와 가족화 분석의 아동 수가 다소 차이가 있다. 연구대상자들은 중류층 가정이었으며,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3세였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모든 어머니가 고등학교졸업 이상이었고, 82% 이상이 전문대졸업 이상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들에게는 부모자녀 관계 평가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제공되었다(진미경, 2009).

비임상군 아동들에 대한 표집은 서울에 위치한 유치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부모자녀 관계 평가에 대한 인쇄물을 유치원을 통해 배부하였고 참여 의사를 밝힌 어머니와 아동들과, 이들 어머니들을 통해 부모자녀 평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참여 의사를 밝힌 어머니와 아동들 53쌍이 참여하였다. 아동들의 연령은 만 6세-만 9세였으며, 6-7세 아동 28명은 유치원을 통해 참여하게 된 아동들이었고, 8-9세 아동 25명은 유치원 아동 어머니들로부터 부모-자녀 관계 평가에 대한 인쇄물 정보를 알고 참여하게 된 아동들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32세였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모든 어머니가 고등학교졸업 이상이었고,

86% 이상이 전문대졸업 이상이었다.

2. 연구도구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

본 연구에서 아동들의 애착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실행된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는 Green, Stanley, Smith와 Goldwyn(2000)에 의해 낮은상황실험과 성인애착면접의 개념 및 방법론을 통합하여 고안된 도구이다. 평가 도구에 대한 적정 연령은 만 4.5세부터 만 9.5세 아동들로 보고되어 있다.

검사 절차는 양육자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네 가지 에피소드(다쳤을 때, 아플 때, 악몽을 꾸었을 때,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자는 각각의 에피소드 상황을 연출하고 각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이야기를 완성하도록 아동에게 요구하며, 각 상황에 대하여 아동은 인형놀이를 통해 이야기를 완성하게 된다.

아동의 이야기 내용과 아동이 실험 중에 보이는 행동을 바탕으로 아동이 인식한 양육자의 양육 행동과 이야기의 일관성(coherence)이 평가되며, 이를 바탕으로 애착 유형이 분류된다. 아동이 인식한 양육자의 양육 행동들은 9점 척도들로 근접성 추구(proximity), 양육자의 따뜻함(carer warmth), 양육자 민감성(carer sensitivity), 자기 돌봄(self-care), 강압적(intrusiveness), 갈등이 있는 행동(conflicted behavior)등의 척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 이야기의 일관성(coherence)은 담화 내용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질적인 측면), 담화내용이 간결하면서도 분명한지(양적인 측면),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관련성의 측면), 어법상 명확하고 조리 있게 이야기 하는지(양식의 측면)로 평가된다(진미경, 2009; Green et al, 2003). 이러한 아동의 일관성 평가는 아동의 전반적인 나레이티브 내용과, 각 에피소드의 완성 후 그 상황에서 아동과 양육자 인형이 어떠한 느낌과 생각이 드는지 질문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통해 평가된다. 이러한 절차는 연령에 따라 아동이 가상으로 에피소드를 완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실제적으로 본 척도를 개발한 Green과 동료들(2003)은 평가에 있어 연령의 영향을 연구한 결과 만 9.5세까지 타당한 평가척도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척도들을 근거로 애착관계는 안정애착, 회피애착, 저항애착, 비조직화 유형으로 분류되어진다. 각각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양육자의 돌봄을 통해 스트레스가 완화되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어, 에피소드에서 양육자의 돌봄을 추구하고 받아들이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완화됨을 보여준다. 회피유형의 아동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육자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아, 에피소드에서 자기 돌봄의 형태를 보이거나 스트레스 자체에 대한 거부를 보인다. 저항애착 유형의 아동은 에피소드에서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양육자를 등장시키지만, 양가적인 태도를 보인다.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만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상반되는 행동(contradictory behavior)과 양육자와의 갈등적인 행동들을 보이게 된다. 비조직화 유형의 아동은, 문제해결을 위한 1) 전략(strategy) 자체가 부재, 2) 여러 가지 전략들을 혼합, 3) 동시

적 혹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상반된 행동, 4) 맥락 밖의 상반된 행동으로의 갑작스런 움직임, 5) 불완전한 움직임들, 순간적인 얼어붙는 듯한 행동이나 정지 자세, 6) 부모를 향한 두려움, 7) 직접적인 비조직화된 행동 등을 보인다(진미경, 2009; Green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과 대학원생 2명이 검사에 대한 워크숍 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로부터 검사 실행에 대한 설명과 매뉴얼에 따른 일정한 훈련 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 검사 전 과정은 비디오로 녹화되었고, 분석은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 절차와 평가를 위한 워크숍을 맨체스터 대학에서 이수하고 신뢰성 테스트를 통과한 전문가와 평가 방법에 대한 훈련을 받은 심리학과 대학원생들에 의해 이루어 졌다. 두 평정자간 일치도는 $k=.89$, $p=.00$ 였다. 불일치를 보인 사례들에 대해서는 두 평정자간 논의가 이루어졌다.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척도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관찰은 어머니가 아동이 방안에 있는 놀이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상황, 자유놀이 상황, 장난감을 함께 정리하는 상황, 퍼즐 함께 맞추기의 네 가지 구조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관찰된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의 평가를 위해서는 정서적 가용성 척도(The emotional availability scales)를 사용하였다. 정서적 가용성 척도는 Biringen, Robinson과 Emde(2000)에 의해 개발된 척도로 9점 척도의 민감성(sensitivity), 구조화(structuring), 비침해적인(nonintrusiveness) 그리고 비적대적인(nonhostility) 부모행동 척도로 구성되어 지며, 아동 행동 척도는 반응성

(responsiveness) 척도와 아동의 부모 관련(involving) 척도로 구성되어진다.

민감성 척도는 부모가 아동의 정서적 욕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반응하느냐를 평가하고, 구조화 척도는 아동에 의해 수용되는 방식으로 부모가 구조화하는 능력을 평가하며, 비침해적인 그리고 비적대적인 척도는 아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적대적으로 이야기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행동을 평가한다. 또한 아동의 반응성 척도는 아동이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정도를 평가하며, 아동의 부모 관련 척도는 부모를 자신의 놀이로 개입시키는 아동의 능력을 평가한다(진미경, 2009).

본 연구에서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는 심리학과 대학원생 2인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각 척도들에 대한 두 평정자 간의 신뢰도는 .91 - .94로 나타났다. 평가는 아동에 대한 사전정보 없이 이루어 졌으며, 불일치를 보이는 사례에 대해서는 두 평정자간 논의가 이루어졌다.

가족그림검사

아동의 가족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Fury(1996)에 의해 고안된 가족화 그림 척도가 이용되었다. Fury의 가족화 척도는 모두 7(1-7)점 척도들로 생명력/창조성, 가족에 대한 긍지/행복감, 취약성, 정서적 거리감, 긴장/분노, 역할전이, 기이함 척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생명력/창조성은 그림에서 장식, 상세함, 창조성에 반영된 아동의 노력을 평가하는 척도이며, 가족에 대한 긍지/행복감은 가족구성원에 대한 소속감 혹은 행복감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취약성은 인물들의 크기 왜곡, 위치, 신체

일부의 과장에서 반영된 취약성과 불확실성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이며, 정서적 거리감은 아동과 가족 사이의 중립적 혹은 부정적 정서, 거리감과 관련된 척도이다. 긴장/분노는 색채나 상세함이 없이 갑갑하게 보이는 인물들에 반영된 긴장, 분노를 나타내며, 역할전이는 인물들의 역할 혹은 크기에서 반영된 역할전이의 특징들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기이함은 그림에 나타난 이례적인 상징들, 환상적인 주제들과 관련된 척도이다(진미경, 2009).

본 연구에서 가족화에 대한 평가는 심리학과 대학원생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각 척도들에 대한 두 평정자 간의 신뢰도는 .89 - .94로 나타났다. 평가는 아동에 대한 사전정보 없이 이루어 졌으며, 불일치를 보이는 사례에 대해서는 두 평정자간 논의가 이루어졌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for Windo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임상군 아동들의 애착유형 분포와 비임상군 아동들의 애착유형 분포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교차분석이 이용되었다. 애착유형 ABCD 네 가지 유형에 있어 두 집단 간 차이 분석을 하기 위해 χ^2 검증을 할 필요가 있었으나, χ^2 검증을 실시할 때는 획득도수와 기대도수가 5보다 작은 칸이 전체 칸 수의 20%이하여야 한다는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안정-불안정의 두 가지 애착유형

간 차이가 있는지가 검증되었다. 한편 임상군과 비임상군 아동들 간에 같은 애착유형별로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는지, 가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애착 표상 유형 분포

맨체스터 애착이야기 검사를 통해 얻어진 임상군과 비임상군 아동들의 애착유형 분포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네 가지 유형간 차이를 살펴보는데 있어서는 각 유형별 사례수가 적은 관계로, 안정 애착 vs. 불안정 애착으로 분류하여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비임상군 아동들이 임상군 아동들에 비해 안정 애착에 있어 높은 분포를, 불안정애착에 있어 낮은 분포 비율을 나타냈다($\chi^2(1, N = 115) = 5.84, p < .05$).

2. 아동 애착 유형별 어머니-아동의 상호작용의 차이

다음으로 임상군과 비임상군 아동들간의 같은 애착 유형별로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 행동들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2는 임상군 아동-어머니들과 비임상군 아동-어머니들 간 안정대 불안정 아동 애착에 따라 어머니의 민감성, 구조화, 비침해적인, 비적대적인 행동과 아동

표 1. 임상군과 비임상군 아동들의 애착유형 분포

	애착유형				
	회피 (<i>n</i> = 21)	안정 (<i>n</i> = 71)	저항 (<i>n</i> = 14)	비조직 (<i>n</i> = 9)	전체 (<i>n</i> = 115)
임상군 (<i>n</i> = 62)	13 (21%)	32 (51.6%)	11 (17.7%)	6 (9.7%)	62 (53.9%)
비임상군 (<i>n</i> = 53)	8 (15%)	39 (73.6%)	3 (5.7%)	3 (5.7%)	53 (46.1%)
전체 (<i>n</i> = 115)	21 (18.3%)	71 (61.7%)	14 (12.2%)	9 (7.8%)	115 (100%)

표 2. 안정 대 불안정 애착에 따른 임상군과 비임상군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안정(<i>n</i> = 71)					불안정(<i>n</i> = 44)				
	임상군 (<i>n</i> = 32)		비임상군 (<i>n</i> = 39)		<i>t</i>	임상군 (<i>n</i> = 30)		비임상군 (<i>n</i> = 14)		<i>t</i>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민감성	6.59	1.88	7.00	1.65	-.97	5.77	1.07	6.14	1.29	-1.02
구조화	3.97	.90	4.00	.86	-.15	3.77	.68	3.64	.63	.58
비침해적	4.09	.69	4.82	1.73	-2.40*	3.80	.61	4.07	1.77	-.56
비적대적	4.69	.64	5.03	1.51	-1.18	4.20	.81	4.57	1.45	-1.09
반응성	5.75	1.24	5.69	1.67	.16	4.97	1.33	5.71	1.59	-1.64
관련성	6.38	.61	6.31	1.49	.26	5.60	1.07	6.21	1.31	-1.65

의 반응적, 부모를 관련시키는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안정 애착 그룹의 임상군 아동들과 비임상군 아동들 간에 비침해적인 척도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안정애착 그룹의 비임상군 아동들의 어머니들이 비침해적 척도($t(52) = -2.40, p < .05$)점수에 있어 임상군 아동들 어머니들보다 높았다. 다른 척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불안정 그룹에 있어서는 모

든 척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아동의 애착 유형별 가족에 대한 인식차이

다음으로 임상군과 비임상군 아동들 간의 같은 애착 유형별로 가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3은 임상군 아동들과 비임상

표 3. 안정 대 불안정 애착에 따른 임상군과 비임상군 아동의 가족에 대한 인식

가족 인식	안정($n = 66$)					불안정($n = 35$)				
	임상군 ($n = 27$)		비임상군 ($n = 39$)		t	임상군 ($n = 21$)		비임상군 ($n = 14$)		t
	M	SD	M	SD		M	SD	M	SD	
생명력/창조성	4.19	1.64	4.33	1.48	-.38	3.71	1.06	4.00	1.66	-.62
가족궁지/행복감	4.33	1.41	4.31	1.54	.07	3.86	.91	3.86	2.03	.00
취약성	4.19	1.67	3.82	1.52	.92	4.81	.93	3.79	1.67	2.09
정서적 거리감	4.56	1.55	3.36	1.37	3.31**	4.71	1.06	3.86	1.17	2.26*
긴장/분노	3.56	1.53	3.64	1.51	-.23	4.14	1.39	3.64	1.99	.88
역할전이	3.37	.97	2.67	1.20	2.53*	3.48	.81	3.14	1.29	.86
기이함	1.74	.76	1.77	1.50	-.10	2.10	1.00	1.93	1.44	.41
병리	3.37	1.57	2.41	1.96	2.12*	3.38	1.20	2.79	1.63	1.25

군 아동들 간 안정 대 불안정 애착에 따라 생명력/창조성, 가족에 대한 궁지/행복감, 취약성, 정서적 거리감, 긴장/분노, 역할전이, 기이함, 병리 척도들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안정 애착 그룹의 임상군 아동들과 비임상군 아동들간에 정서적 거리감과 역할전이 척도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안정 애착 그룹의 임상군 아동들이 정서적 거리감 척도($t(64) = 3.31, p < .01$)와 역할전이 척도($t(64) = 2.53, p < .05$) 점수에 있어 비임상군 아동들보다 높았다. 다른 척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불안정 그룹에 있어서는 정서적 거리감 척도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불안정 애착 그룹의 임상군 아동들이 정서적 거리감 척도($t(33) = 2.26, p < .05$) 점수에 있어 비임상군 아동들보다 높았다. 다른 척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임상군과 비임상군 아동들을 대상으로 애착 유형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애착 유형에 따라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가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안정 애착 vs. 불안정 애착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비임상군 아동들이 임상군 아동들에 비해 안정 애착에 있어 높은 분포를, 불안정 애착에 있어 낮은 분포 비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차이는 임상군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불안정 애착 유형으로 분류된 아동의 분포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Goldwyn 등(2000)의 연구와 Bretherton 등(1990)의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의 비임상군 집단의 애착유형 분포에 있어 불안정 애착 유형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임

상군과 비임상군 아동간에 안정 대 불안정 애착 비율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임상군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논의가 지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임상군과 비임상군 아동간에 애착 유형별로 어머니-아동의 상호작용 행동들이 차이가 있는지 분석되어졌고, 그 결과 안정 애착 그룹의 임상군 아동들과 비임상군 아동들간에 비침해적인 척도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안정 애착 그룹의 비임상군 아동들의 어머니들이 비침해적 척도 점수에 있어 임상군 아동들 어머니들보다 높았다. 다른 척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불안정 그룹에 있어서는 모든 척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같은 애착 유형간에는 임상군과 비임상군간의 변별적 차이가 적음을 나타낸다. 즉,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은 임상군과 비임상군의 변별성보다는 애착유형간의 변별성을 더 갖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양육행동과 애착관계 형성과의 관련성을 논의한 선행 연구의 결과들(Ainsworth et al., 1978; Belsky et al., 1984; Isabella & Belsky, 1991)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선행연구들은 양육자의 민감성과 아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적대적으로 이야기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행동의 중요성을 보고하였다. 또한 임상군을 대상으로 양육행동과 애착관계와의 관련성을 보고한 진미경(2009)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안정 애착인 집단의 어머니들이 저항 애착인 집단의 어머니들보다 비적대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고, 안정 애착으로 분류된 아동들이 회피 애착으로 분류된 아동들보다 반응적이고, 놀

이에 부모를 관련시키는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은 애착 유형간 어머니-아동간의 상호작용의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는 것으로,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은 임상군과 비임상군의 변별성보다는 애착 유형간의 변별성을 더 갖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임상군과 비임상군 아동간에 애착 유형별로 아동들의 가족 그림에 나타난 가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안정 애착 그룹의 임상군 아동들과 비임상군 아동들간에 정서적 거리감과 역할전이 척도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안정 애착 그룹의 임상군 아동들이 정서적 거리감 척도와 역할전이 척도 점수에 있어 비임상군 아동들보다 높았다. 다른 척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불안정 애착 그룹에 있어서는 정서적 거리감 척도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불안정 애착 그룹의 임상군 아동들이 정서적 거리감 척도 점수에 있어 비임상군 아동들보다 높았다. 다른 척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공통적으로 정서적 거리감 척도가 변별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임상군 아동들을 대상으로 애착 유형별로 가족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보고한 선행 연구들이나, 임상군 아동들을 대상으로 애착 유형별로 가족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보고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임상군을 대상으로 애착 유형별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정서적 거리감에 있어 차이를 보고한 진미경(2009)의 선행연구 결과나, 정서적 부정적 집단의 아동이 가족 그림을 그릴 때 가족

구성원을 생략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Myers (1978)의 연구 결과, 정서적 부적응 집단의 아동이 가족구성원 사이에 장애물을 더 많이 그렸다는 Weinstein(196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애착 유형별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정서적 거리감에 있어 차이를 보고한 진미경과 이경숙(2007)의 선행연구 결과 또한 정서적 거리감이 애착유형간이나 임상군과 비임상군 여부 모두에 있어 변별성을 가짐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특히 한 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아동이 인식한 정서적 거리감이 같은 애착 유형구분임에도 불구하고 임상군과 비임상군에서 차이가 났다는 점인데, 이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추론은 본 연구대상의 아동들 대부분이 정서장애와 과운동성 장애로 진단된 아동들이라는 연구대상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어진다. 실제적으로 정서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그림을 대상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가족 구성원을 생략하거나 가족구성원 사이에 장애물을 더 많이 그리는 특징들이 나타났는데(양익홍, 1984; Myers, 1978; Weinstein, 1965), 이를 통해 아동과 특정 가족구성원 사이의 부정적 정서와 거리감이 특히 정서장애와 관련되어지는 것은 아닌지 추론되어지며, 이에 대한 추후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진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임상군과 비임상군 아동들간에 애착 유형별로 어머니-아동 상호작용과 가족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본 결과, 비침해적인 어머니의 상호작용과, 아동의 정서적 거리감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가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애착 유형에 따른 특성을 변별하는 변별력뿐만 아니라 임상군과 비임상군 여부에 따라서도 변별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그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상담 현장 및 애착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 고려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후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제기되는 바이다. 세부 애착 유형별로 보다 변별력 있는 차이 분석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례 수에 대한 분석을 통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임상군연구대상의 섭외과정에 있어 학령전 아동의 경우 유치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학령기 아동의 경우 유치원 아동 어머니들을 통한 홍보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섭외방법의 차이는 연구 참여의 자발성 측면에서 연구방법 적용시 임상군과 비임상군의 적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제한점이 제기되어지는 바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임상적 변별성 검증을 위해서는,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임상군과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같은 검사자료를 가지고 비교분석을 통해 두 집단 간 어떠한 변별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반복적인 연구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김승경, 강문희 (1999). 영아-어머니 간 상호작용 측면에서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아동학회지*, 20(2), 139-150.
- 김윤숙 (2005). 동적가족화를 통한 유아의 가족

- 지각과 사회·정서 발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권정혜 (1998). 우울증상과 관련 대인관계 특성: 성인기 애착관계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139-153.
- 나유미 (1996). 한국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행동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응임 (1994). 영아-어머니 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응임, 유명희 (1997). 애착의 지속성에 관한 단기 종단적 연구: 영아기의 낯선 상황 애착 유형과 유아기의 애착 안정성. *아동학회지*, 18(2), 33-46.
- 성희용, 방희정, 이순행 (2005). 문제해결 상황에서 어머니 행동 특성과 애착 안정성이 유아의 행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2), 57-74.
- 양익홍 (1984). 정상유아와 정서장애유아의 운동성 가족화 검사반응의 요인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자 (1998). 애착의 세대 간 전이: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영아의 애착유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진미경 (2006). 영아의 애착 유형과 어머니의 애착 표상 유형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27(6), 69-79.
- 진미경 (2009). 나레이티브를 통한 아동의 애착 평가의 임상적 유용성: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행동, 문제행동, 가족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6(3), 27-42.
- 진미경, 이경숙 (2007). 아동기 애착 유형에 따른 아동의 가족화 연구. *아동학회지*, 28(4), 187-196.
- 최해훈, 이경숙, 김태련 (1998). 영아의 애착 유형과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1), 131-142.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Hillsdale, NJ: Erlbaum.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 Barends, N. (2002). Personality and parenting. In M. C. Bornstein(Eds.), *Handbook of parenting*(2nd edn, Vol. 3, pp.415-438). Mahwah, NJ: Erlbaum.
- Belsky, J., Crnic, K., & Woodworth, S. (1995). Personality and parenting: Exploring the mediating role of transient mood and daily hassles. *Journal of Personality*, 63, 905-929.
- Belsky, J., Rovine, M. J., & Taylor, D. G. (1984). The Pennsylvania Infant and Family Development Project: III. The origin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ttachment: Maternal and infant contributions. *Child Development*, 55, 718-728.
- Biringen, Z., Robinson, J. L., & Emde, R. N. (2000). Appendix B: The Emotional Availability Scales.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2, 256-270.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I Attachment*. NY: Basic Books.
- Bowlby, J. (1973).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 York: Basic Books.
-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 (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An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for 3-year-olds. In M. Greenberg, D. Cicchetti, &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pp.273-308). Chicago Press.
- De Wolf, M. S., & van IJzendoorn, M. H. (1997). Sensitivity and attachment. A meta-analysis on parental antecedents of infa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8, 571-591.
- Fury, G. (1996). *The relation between infant attachment history and representations of relationships in school-aged family drawing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Goldsmith, H. H., & Alansky, J. A. (1987). Maternal and infant predictors of attachment: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805-816.
- Goldwyn, R., Stanley, C., Smith, V., & Green, J. (2000). The Manchester Child Attachment Story Task: relationship with parental AAI, SAT and child behaviour.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1(1), 71-84.
- Green, J., Stanley, C., & Goldwyn, R. (2003). *Manchester Child Attachment Story Task*. Unpublished manual, University of Manchester.
- Green, J., Stanley, C., Smith, V., & Goldwyn, R. (2000). A new method of evaluating attachment representations in young school-age children: The Manchester Child Attachment Story Task.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1(1), 48-70.
- Grossmann, K., Grossmann, K. E., Spangler, G., Suess, G., & Unzner, L. (1985). Maternal sensitivity and newborns' orientation responses as related to quality of attachment in Northern Germany.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233-256.
- Isabella, R. A., & Belsky, J. (1991). Interaction a synchrony and the origi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A replication study. *Child Development*, 62, 373-384.
- Jarvis, P. A., & Creasey, G. L. (1991). Parental stress, coping, and attachment in families with an 18-month-old infant.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4, 383-395.
- Kagan, J. (1982). *Psychological research on the human infant: An evaluation summary*. New York: W. T. Grant Foundation.
- Kobak, P. R., Sudler, N., & Gamble, W. (1991). Attachment and depressive symptom during adolescence: A developmental pathways analysi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 461-474.
- Kochanska, G., Clark L. A., & Goldman, M. S. (1997). Implications of mother's personality for their parenting and their young children's developmental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65, 387-420.
- Lyons-Ruth, K., Repacholi, B., McLeod, S., & Silva, E. (1991). Disorganized attachment

- behavior in infancy: Short-term stability, maternal and infant correlates, and risk-related subtyp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 377-396.
- Main, M., & Cassidy, J. (1988). Categories of response to reunion with the parent at age: Predictable from infant attachment classifications and stable over a 1-month period. *Developmental Psychology*, 24, 1-12.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1-2, Serial No. 209), 66-104.
- Mangelsdorf, S., Gunnar, M., Kestenbaum, R., Lang, S., & Andreas, D. (1990) Infant proneness-to-distress temperament, maternal personality, and mother-infant attachment: association and goodness-of-fit. *Child Development*, 61, 820-831.
- Myers, D. V. (1978). toward an objective Evaluation Procedure for the Kinetic Family Drawings (K-F-D).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2, 358-365.
- Pederson, D. R., & Moran, G. (1995). A categorical description of infant-mother relationships in the home and its relation to Q-sort measures of infant-mother interaction. In E. Waters, B. E. Vaughn, G. Posada, & K. Kondo-Ikemura (Eds), *Caregiving, cultural, and cognitive perspectives on secure-base behavior and working models: New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0, 111-128.
- Rosenstein, D. S., & Horowitz, H. A. (1996). Adolescent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2), 244-253.
- Shaw, D. S., & Vondra, J. I. (1993). Chronic family adversity and infant attachment securit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4, 1205-1215.
- Teti, D. M., Nakagawa, M., Das, R., & Wirth, O. (1991). Security of attachment between preschoolers and their mothers: Relations among social interaction, parenting stress, and mothers' sorts of the Attachment Q-set.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40-447.
- van IJzendoorn, M. H. (1995).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Parental Responsiveness, and Infant Attachment: A Meta-Analysis on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7(3), 387-403.
- Weinstein, L. (1965). Social schema of emotionally disturbed bo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0, 457-461.
- Zeanah, C. H., & Barton, M. (1989). Introduction Internal Representations and Parent-Infant Relationship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0, 135-141.

1차 원고접수 : 2011. 9. 30

수정 원고접수 : 2011. 11. 14

최종 게재결정 : 2011. 11. 29

Children's Attachment Representations Based on the Narrative Method: The Relationship to mother-child interactions and perceptions of family through a comparison of clinical samples vs. non-clinical samples

Jin, Mi Kyoung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linical application of children's attachment representations based on the narrative method. This was done in order to analyze the relationship of these attachment representations to mother-child interactions and perceptions of family through a comparison of clinical samples vs. non-clinical samples. The clinical samples used for this study consisted of 62 pairs of mothers and children, who visited K university hospital. The non-clinical samples consisted of 53 pairs of mothers and children attending Kindergartens and schools in Seoul. The Manchester attachment story task was used to measure the attachment classification. Mother-child interactions were observed through the emotional availability scale (EAS) while family drawings were evaluated through Fury's family drawing scal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On the basis of comparing the attachment classification with the clinical samples and non-clinical samples, the non-clinical samples revealed a higher proportion of secure attachment classifications than the clinical samples did. In the same context, the non-clinical samples presented a lower proportion of insecure attachment classifications than clinical samples did. In the secure attachment group, the mothers from the non-clinical samples presented higher non-intrusive scores than the clinical samples did. Regarding the perception of family, in the secure attachment group, the clinical samples demonstrated higher scores in emotional distance and role reversing than the non-clinical samples did. In the insecure attachment group, the clinical samples demonstrated higher scores in emotional distance than the non-clinical samples did.

Key words : child attachment, mother-child interaction, perception about family